

유사휘발유로 골병 드는 석유유통시장

글·김노아 | 월간주유소 취재팀장

세녹스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 지금처럼 유사석유제품이 버젓이 대낮에 그리고 대량으로 유통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지하에서 몰래 제조되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유사석유제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일등 공신이 세녹스다.

세녹스의 제조사측에 따르면 세녹스는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세녹스라며 팔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녹스의 탈을 뒤집어 쓴 유사석유제품이다. 결국 세녹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에 유사석유제품이 흘러 넘치고 있는 셈이다.

주유소 판매량 갉아먹는 세녹스

유사석유제품이 창궐하자 석유유통업계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유소는 최대 피해자로 꼽히고 있다. 판매량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각 지역별 주유소 판매량을 살펴보면 서울지방법원이 세녹스 제조사측의 손을 들어준 작년 11월의 주유소별 월평균 판매량은 작년 10월보다 무려 25~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의 10월 판매량은 주유소당 977드럼이었지만 11월에는 809드럼으로 170드럼이 떨어졌다. 광주광역시 A주유소의 사장은 “세녹스와 엘피파워 전문판매점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월평균 1천200드럼을 팔았는데 현재는 월평균 700드럼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주문배달을 받아 통 판매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판매량 감소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세녹스 판매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문판매점과 판매소(길거리에 자리잡은 소형점포)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경북지역에서는 칠곡군에서 세녹스 전문판매점이 작년 11월 22일부로 영업을 재개했다. 또 판매소들은 홍보 현수막을 걸어 놓고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차량 이동판매도 점차 증가세다.

각 지역별 주유소 판매량을 살펴보면 서울지방법원이 세녹스 제조사측의 손을 들어준 작년 11월의 주유소별 월평균 판매량은 작년 10월보다 무려 25~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와 순천의 경우 8개의 전문판매점이 영업중이다. 여수의 한 주유소 사장은 “세녹스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는 세녹스의 아류 제품인 LP-POWER를 판매하는 곳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4~5만원씩 주유하던 단골고객들도 3만원 정도는 세녹스나 LP-POWER로 채우고 주유소에선 1만원만 주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광역시 B주유소의 사장은 “하루 20~30드럼을 팔던 주유소가 하루 5드럼을 팔고 있다면 심정이 어땠겠는가? 주말에는 세녹스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차량의 길이만 50m가 넘는다. 그걸 보고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충청도 권역에서도 세녹스는 위력을 떨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총 6개의 전문판매점이 영업중이며 충주에서도 전문판매점이 작년 11월 26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특히 충주시는 노상판매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회의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에 연료 첨가제 홍보물을 유포해 놓고서는 전화로 주문을 받아 배달해주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세녹스와 유사휘발유끼리 서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이동식 차량의 세녹스 판매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고양시 인근의 카센타 3곳, 콘테이너 4곳, 이동식 차량의 15개 판매소가 세녹스를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20개의 세녹스관련 동호회가 활동중이다. 대표적인 사이트(<http://cafe.daum.net/cenox>)에는 세녹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판매점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큰 커뮤니티의 회원이 6천300명, 그외 다수의 커뮤니티 회원들을 합하면 1만명은 족히 넘는다. 소비자들로 구성된 이 사이트에서는 판매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3통 이상(18ℓ 기준) 주문하면 1통 당 1만7천원에 팔고 있다.

주유소에 판매 권유하는 제조사들

세녹스 판매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다 보니 심지어는 주유소를 접고 전문판매점으로 오픈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5개의 주유소가 이미 전문판매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이밖에 충청지역 2개소, 대전과 충남지역에 2개소, 전북지역 2개소, 대구 지역 2개소, 기타 1개소로 총 12개소가 주유소를 포기하고 세녹스를 팔고 있다. 폴사인별로 보면 12개소 중 독립계 폴이 가장 많고 나머지 7개소는 4개 정유사의 폴을 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이 아니다.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사들은 주유소에 판매를 권유하는 안내문까지 발송했다. 지난 1월 초순, 부산광역시의 A주유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엘피파워는 환경친화적인 신개념 다목적 첨가제입니다. 국내 유일의 특허획득 첨가제로서 대기환경법 제41조와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된 다목

적 첨가제입니다. 시청에서 발급해 취득하는 주유취급소 허가를 별도로 폐지하고 소방서에서 취득한 위험물 저장취급소 설치허가만 있으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엘피파워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상태로 첨가 비율은 1% 미만으로 제한돼 대기환경법에도 저촉된다. 저장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판매를 허가받은 것은 아니며 지정수량(100ℓ) 이상을 저장했을 경우에도 소방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내문은 “휘발유는 판매가격의 5%가 수익이지만 엘피파워는 21%가 마진”이라며 “현재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장님과 신규점 오픈 상담을 환영한다”고 유혹하고 있다.

주유소업계의 관계자는 “이런 식의 안내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마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언제고 끝날 게임이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촌평했다.

공권력은 완전 무시, 단속실적 미미

이렇게 세녹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12월 26일 동맹휴업을 벌인 이후에도 경찰서에 꾸준히 신고와 고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은 거의 전무하다. 신흥수 광주전남지회 회회장은 “경찰이 찾아가도 판매업자들은 코웃음을 친다”며 “경찰은 판매소에 진열한 것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면서 주입 현장이나 주유행위를 사진으로 촬영해달라고 하더라. 경찰이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나 시청과 군청의 관계자들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구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단속하고 검찰로 넘겨도 검사들부터 혐의가 없거나 경범죄 정도의 처벌에 그치고 있으니 잡으려 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 공무원들측에서는 “석유사업법이 아직 개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법을 근거로 고발하고 단속하느냐?”고 되묻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소방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세녹스 전문판매점을 압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단속까지 미미하자 주유소업계는 “아예 세녹스를 우리도 팔아버리겠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적어도 정부와 정유사들이 지금처럼 대응하겠느냐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세녹스는 지금처럼 소송에 매달리거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그동안 석유유통시장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으며 파국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들이 힘을 모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세녹스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단속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할 시점이다. ☹